

이흥재의 세상만사



요즘 참 맘에 드는 여인이 있다. 얼굴이 예뻐서도, 몸매가 '착해'서도 아니다. 묵묵히 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든든하기 때문이다. 이 여인이 누구인지는 조금 있다 밝힐 기회가 있을 테니 잠시 미루 두고.

오늘은 우선 무등산에 관한 추억 한 토막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아주 오래전 국민학교에 다닐 때다. 지금은 이름도 잊었지만 그곳 무등산에 사는 벗이 있었다. 개가 하는 말이 자기 집 부근 숲속에는 철이 많다고 했다.

흔히들 아주 적은 액수를 말할 때 '검갑도 안 된다'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당시에는 그 하찮은 검마저도 귀한 것이었다. 부잣집 자식 아니면 군것질도 사지 않던, 그야말로 모두가 어려운 시절이었으니까. 그러하던 때, 단물을 빨아먹을 수 있는 철은 검의 대응으로서 아주 훌륭한 심심풀이이자 간식거리였다.

친구의 집은 옛날 성터가 있었다는 가파른 잣고개(‘잣’은 성(城)의 옛말)를 넘어서 한참을 더 가

야 했다. 어린 나이에 십리도 훨씬 넘는 산길을 걸어서 간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친구야 날마다 빠짐없이 다니는 등갓길(계림국민학교)이었으니, 앞장서서 가는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더라고, 무등산엔 난생 처음 가 보게 된 것은 순전히 그 친구 덕분이었다.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 그때 철을 얼마나 썼는지는 기억이 가물거물하다. 다만 깊은 산중 외딴집에서, 마치 ‘무등산 타잔’(박흥숙)처럼 힘든 유년시절을 보냈을 그 친구는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지, 문득 궁금해진다.

광주 사람이라면 저마다 무등산에 관한 추억 하나쯤 간직하고 있을 터. 이제 다시 빛바랜 추억 하나를 더 꺼내자면,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산행 이따시고 무등산에 올랐던 일도 잊을 수 없다.

북벌 땅도 아닌데 왜 못 가나

명색이 등산이라고는 하지만 요즘처럼 흔한 등산복(아웃도어)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우리 까까머리 친구들은 모두 교련복 차림이었고, 준비물이 레야 찌그러진 냄비에 쌀 한 움큼과 된장 한 덩어리가 전부였다. 그래도 맑은 계곡물을 길러 끓인, 멀치 한 마리 들어가지 않은 맨 된장국이 말아먹는 하얀 쌀밥은 어찌 그리도 맛있었지.

그 뒤 산을 좋아하게 되면서 주말이면 늘, 내 집

50년을 기다렸다! 그곳에 오를 날

드나들듯 무등산에 올랐던 시절도 있었다. 고개를 올라서면 펼쳐지는 넓은 초원이 마치 스님의 머리 같다 해서 이름 붙여진 중머리재. 정상에 바윗덩이가 임금의 옥새(玉璽) 모양을 닮았다는 새인봉(新印峰), ‘너덜강’(돌이나 바위가 많이 흩어져 있는 비탈)이란 예쁜 우리말을 처음 알게 된 것도 무등산과 인연을 맺으면서였다.

9천만 년 전에 솟아올라 억겁의 풍상을 겪으면서도 장엄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입석대. 육당 최남선이 “ 좋게 말하면 수정 병풍을 둘러쳤다 하겠고 박렬하게 말하면 해금강 한 귀퉁이를 떠 떼다 하고 싶은 것”이라 했던 서석대. 그리고 바람재·장봉재·교막재·봉황대·중봉·규봉·용추폭포...

가 볼 만한 곳은 거의 다 가 봤으나 늘 아쉬움은 남았다. 천왕봉·지왕봉·인왕봉의 무등산 정상을 밟아 볼 수 없기 때문이었다. 지금이야 마치 견우·직녀가 만나듯이 어쩌다 한 번씩 정해진 날짜에 오를 수 있게 되었지만, 철조망이 가로막힌 북벌 땅도 아닌데도 무등산 정상은 지척에 두고도 갈 수 없는 곳이었다.

우리는 그곳을 언제쯤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을까. 정상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는 언제쯤 옮길 수 있을까. 이제 국가안보를 위해 내어준 무등산 정상을 되찾아 올 적기(適期)가 도래했다. 무등산 공군부대가 광주시에 허가받은 부지 사용기간이 오는 12월 31일자로 만료를 앞두고 있기 때

문이다. 군부대는 지금 광주시와 전남도 그리고 사찰 소유의 무등산 정상부를 50년째 무상으로 사용 중이다. 이 때문에 무등산은 국내 국립공원 중 유일하게 정상에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방부가 대공방어를 위해 2020년대 초반까지 한국형 미사일방어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기로 방침을 세우면서, 군부대의 무등산 주둔 필요성은 사라졌다. 새로운 무기 체계 도입으로 무등산 정상을 주둔지로 고집하지 않아도 국토방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무등산 정상을 시민의 품으로

이러한 일련의 사실이 알려진 것은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광산 을)의 활약 덕분이다. 그동안 ‘무등산을 시민의 품으로’라는 구호는 요란했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때 권 의원이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칭찬받아 마땅하다.

지난해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그는 자신의 전공(법조 경향)과는 다른 국방위에 배치되자 한순간 막막했던 모양이다. 하지만 관바로 지역과 관련된 국방 현안이 의외로 많은 것을 알게 됐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무등산 정상의 군부대 이전 문제를 파고들게 됐고, 드디어 실마리를 풀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군부대 부지 소유 주체 및 무상 사

유기간 종료 시점)를 알아낸 것이었다.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로 정보 접근이 제한적이었다 보니 지금까지 아무도 밝혀내지 못한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성실성과 끈기찬 노력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이제야 밝혀지지만 이번 칼럼의 끝머리에서 언급한 ‘요즘 맘에 드는 여인’, 바로 권 의원이다.

문제는 군부대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는가이다. 이제 군부대 부지가 국방부 땅이 아닌 사유지나 공유지로 밝혀진 만큼 자체적인 특별 회계 방식을 통해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함이 마땅하다. 아울러 연말에 군부대의 무상 사용기간을 연장하기 전에 국방부는 군부대 이전 시기와 예산 확보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권 의원에 따르면 다행히 국방부도 대체 부지가 마련되면 무등산 정상의 군부대를 이전할 수 있다는 입장을 최근에 밝혀 왔다고 한다. 국방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광주시가 군부대 이전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하지만 이후 아직 진전된 소식이 없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이었으나 광주시와 지역 정치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서둘렀으면 한다.

그리하여 50년 묵은 광주 시민의 열망과 염원이 하루빨리 풀렸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 무기로 무등산 꼭대기에 오를 수 있는 날이 어서 빨리 왔으면 좋겠다. 비록 ‘오를 수는 있어도 머물 수 없는 곳’이 정상(頂上)이라 하지만. <주필>

전남 적조 피해 32억원...12년만에 최대

전남지역 올해 적조 피해액이 2003년 이후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전남지역 적조 피해액은 31억9800만원(폐사량 219만 마리)이다. 이는 176억원의 피해가 났던 2003년 이후 최대 규모다.

역대 최대 피해 규모는 지난 1995년 216억원이다. 최근 10년간 최대 피해 규모는 2012년 24억2000만원이다.

올해 적조 피해를 지역별로 보면 여수

30여가(폐사량 133만5000마리·피해금액 11억6000만원), 완도 25여가(84만9000마리·20억2600만원), 고흥 1여가(6000마리·1200만원) 등이다. 피해 어가 중 절반 가량이 27여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해 ‘시가’의 80%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현재 적조는 여수에서는 소멸되고 고흥과 완도 일부 지역에 최고 2800코를 로디니움(cell/ml)의 밀도를 보이면서 소강상태에 있다. /윤현석기자chadol@

칠레 8.3 강진...일본까지 쓰나미 경보

16일 오후 7시54분께(현지시간) 칠레 수도 산티아고 인근에서 규모 8.3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5명이 숨지고 지진해일(쓰나미) 경보가 발령됐다.

칠레 내무부는 지진 발생 4시간여가 지난 현재 5명이 사망했으며, 해안 저지대를 포함한 10개 도시에서 100만 명이 쓰나미에 대비해 대피한 것으로 밝혔다. 현지 신문인 라 테르세라 등이 보도했다. 이번 강진으로 칠레 전역을 포함해 미국 하와이, 뉴질랜드, 피지, 일본 등지까지 쓰나

미 경보가 발령됐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진앙은 산티아고 북서쪽으로 228km 떨어진 태평양 연안으로 진원의 깊이는 25km다.

첫 지진 이후 규모 6.0~7.0의 여진이 최소 3차례 이상 발생했고 진앙에서 가까운 아야켄 시에서는 토담집이 무너져 여성 1명이 깔려 숨지는가 하면 십여 명이 부상을 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칠레에 교민 2700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확인된 피해는 없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개막...꼭 챙겨야 할 키워드

- 예술** 이이남 아트센터, 김홍도 등 옛 그림 재해석
- 종합** 전시·공연·학술행사 아우른 세계 첫 축제
- 연계** 죽녹원·대통령...주변 볼거리·먹거리 가득



‘2015 담양 세계대나무박람회’ 개막일인 17일 담양군 담양읍 죽녹원 일대 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가을 필수여행지인 담양에서 다음달 31일까지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가 열려 관광객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다. 꼭 봐야할 세계 박람회의 핵심 프로그램 등을 소개한다.

◇죽녹원과 이이남...담양 대나무로 연결되다=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시설은 단연 ‘이이남 아트센터’다.

담양 출신의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인 이이남 작가가 준비한 ‘이이남 아트센터’는 죽녹원 속 미술관을 컨셉으로 죽녹원의 오감 콘텐츠를 생생하게 담아낸 디지털 미술관이다.

죽녹원 내 약 500㎡ 규모의 2층 건물에 자리한 이이남 아트센터는 이이남 작가의 미디어 아트인 ‘신(新) 목죽도’를 비롯해 김홍도, 강세황, 이경 등 선조들의 작품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다채로운 작품으로 꼭 채워졌다.

◇세계 첫 대나무 종합박람회=일본의 대나무 고장인 다케하라(竹原)의 대나무 등불 축제, 인도 미조랍의 대나무 축제 등 대나무를 소재로 한 축제와 학술행사는 세계 곳곳에서 열리지만, 전시, 공연, 학술행사를 아우르는 종합박람회는 담양이 처음이다. 이는 담양 인근에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인 광주가 위치하고 있는데다 식영정, 환벽당, 소재원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사문화권으로 둘러싸

인 문화의 고장이라는 강점이 큰 힘이 됐다. 담양은 대나무 면적도 타지역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압도적이다. 담양의 대나무 면적은 2420ha로 전국의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1만ha로 확대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4개 주제관·6개 전시관...볼거리 한 가득=박람회장은 죽녹원을 중심으로 하는 주제체험 구역과 전남 도립대 운동장 일대의 주제전시 구역, 종합체육관·도립대 주차장의 체험교육 구역으로 구성됐다.

오감체험관, 미디어아트관, 대나무관, 문화체험관 등 4개의 주제관과 생태문화관, 미래성장관, 대나무기업관, 대나무국제관 등 6개의 부제 전시관으로 다시 나뉜다. 특히 컬러 콘텐츠인 ‘밤부쇼(Bamboo Show)’는 공연자와 영상이 어우러져 박람회 방문 시 꼭 봐야할 프로그램이다.

◇“담양에서 박람회만 봤다면 반쪽 여행”=빠어난 자연환경, 정자·원림 등에 밴 가사문학의 흔적, 대통령·떡갈비·국수 등 다양한 먹거리까지, 담양은 눈길, 발길, 머무는 곳마다 매력적인 관광지다.

연간 150만여명이 찾는 죽녹원, ‘세계적 산책지’ 관방제림,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길인 메타세쿼이아 길, 소재원, 식영정 등 전국을 대표하는 관광지에도 손색이 없다. /담양=정재근기자 jgg@

여수시 공고 제2015-1625호

여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주민 등의 의견청취 열람공고

여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 관계인에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9월 18일
여수시장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배치	5	공공청사	노동부여수 지방사무소	문수동 111-1대	4,856.4	4,856.4	-		

■ 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의 종류	변경 내용	변경 사유
5	노동부 여수지방사무소	-공공청사 배치 (감)4,856.4㎡	-기 이전 완료된 공공청사 시설 배치 및 용도변경

- 획지 및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공공청사

가구번호	면적(㎡)	번호	회 지			위 치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111	-	111	4,856.4	감)4,856.4	-	-	배치

■ 업무시설

가구번호	면적(㎡)	번호	회 지			위 치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	111-1	4,856.4	111-1	-	증)4,856.4	4,856.4	문수동 111-4번지	신설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계재생략
- 여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도면 : 계재 생략

5. 열람장소 : 여수시청 도시계획과
6. 공고기간 : 2015. 9. 18. ~ 10. 2.(15일간)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도시계획과 ☎061-659-40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사기·성범죄·교통사고
이혼·재산분할·위자료
대여금·공사대금·손해배상
보험금 등 각종 금융사건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 산은캐피탈, 한국캐피탈, 전속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는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이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비용 **無** 착수금 **無**
영업사원 모집

대표전화 :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